



뉴발란스는 강정호와 2017년까지 신발과 의류 일체를 제공하는 후원 계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 뉴발란스

뉴발란스, 강정호 공식 후원 신발·의류 등 2017년까지 제공하기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29)를 후원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뉴발란스는 2017년까지 강정호에게 경기용 스파이크를 비롯한 신발과 의류 일체를 제공한다.

강정호는 데뷔 시즌인 2015년 1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지난해 9월 부상 이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2016시즌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강정호에 대해 뉴발란스는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모습이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려 후원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성공에 안주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다는 의미의 브랜드 캠페인 ‘always in beta’와 강정호 선수의 이미지가 일치했다”며 후원 배경을 설명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북한 수소탄 실험에도 코스피 1920선 지켰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도 코스피는 꺾이지 않았다. 6일 핵심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 풍계리 지진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됐지만 코스피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1920선을 지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0포인트(0.26%) 내린 1925.43으로 마감했다. 1930.53으로 출발한 이날 코스피는 오전 11시 전후 북한 핵실험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한때 1911.61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북한이 낮 12시30분 수소탄 핵실험을 공식발표하자 오히려 낙폭이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 리스크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종합지수는 하락했지만 북한 리스크 부각에 따라 방위·방산 등 관련주는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684.07)보다 3.20포인트(0.47%) 오른 687.27에 장을 마감했다.

양형모 기자



휠라가 신학기를 앞두고 출시한 백팩. 트렌디한 디자인에 실용적인 기능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 휠라

휠라, 신학기 백팩 출시

트레비·단테·미켈란 등 8종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신학기를 앞두고 트레비(Trevi)와 단테(Dante), 미켈란(Michela) 등을 포함한 ‘2016 신학기 백팩 8종’(사진)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백팩은 이탈리아의 명소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 붙였으며, 휠라의 새 브랜드 콘셉트인 ‘스타일리시 퍼포먼스’에 입각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에 간편하고 실용적인 내·외부 설계로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책가방을 주로 이용하는 중고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착용 가능하도록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트레비 백팩은 휠라가 100여 년간 이어온 오리자날리티와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컨셉트를 결합해 탄생시킨 모델로, 세련된 감각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블랙과 그린, 그레이, 옐로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최현길 기자

원격 차량관리·자율주행까지…스마트카 기술전쟁

IT기업, 새 먹음거리에 쏠린 시선

LG, GM에 차세대 전기차 부품 11종 공급
SKT, QM3에 태블릿 내비게이션 서비스
애플·구글 등 차량용 OS로 스마트카 공략

‘스마트카’ 사업이 정보기술(IT)기업에 새 먹음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카는 차량을 사물인터넷(IoT) 등 IT기술로 연결해 다양한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모바일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원격차량 관리 등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까지 구현한 차량을 말한다. 주요 IT 기업들은 관련 사업부를 꾸려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완성차 기업과 협력하거나 때론 기술경쟁을 벌이며 시장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삼성·LG 등 관련 사업 추진

최근 국내 IT기업들도 이 분야에 적극 나서

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전사조직에 ‘전장사업팀’을 신설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단기간 내 전장사업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초기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계열사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LG전자는 앞서 관련 사업부를 두고 자동차 부품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엔 GM에 차세대 전기차 부품 11종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안승권 사장은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가전전시회 CES에서 모바일과 가전사업 등에서 축적한 디스플레이와 센서, 카메라, 통신, 모터, 컴프레서 등 기반 기술을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LG전자가 미래 자동차 부품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물론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업을 예로 들며 LG전자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 개발사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커넥티드카를 실현하기 위해 통신이 필요한 만큼 통신 기업들도 스마트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해 2016년형 QM3에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장동현 사장에 올해 초 신년사에서 고객 범위를 자동차 등으로 넓히고, 커넥티드카 등 신규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파트너들과의 선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CES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면서 그 중 하나로 스마트카를 꼽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차량 진단과 운행 및 정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LTE 기반 스마트카 서비스 ‘TiA’를 출시했다. 또 미국 전기자동차 개발 전문 기업 레오모터스와 LTE 통신망을 통해 차량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IoT 통합 관리 솔루션’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중국 기업도 스마트카 공략

해외 IT기업들은 한발 앞서 관련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애플은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를,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스마트카의 최고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부문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또 가장 광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꼽힌다.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슈퍼컴퓨터 ‘드라이브 PX 2’를 선보이며 이를 불보의 프로젝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IT분야 강자로 급부상한 중국 기업들도 스마트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 화웨이는 이번 CES에서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4G 통신 모듈을 미래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 GM과 폭스바겐, 푸조-시트로엥과 같은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황승호 현대차그룹 차량IT개발센터장이 5일(현지시간) 가전 전시회 CES 201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AP뉴시스

현대·기아차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IT와 연동…진화된 미래기술 개발 목표
CES서 스마트카 2조원 투자 계획 밝혀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자율주행 기술이란 일반적인 주행상황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상 부분 자동화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시점의 문제일 뿐 이미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존 경쟁에 있어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자율주행차의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을 2025년 23만대에서 2035년 11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0년 첫 자율주행차로 ‘투산ix 자율주행차’를 데모가 형태로 선보인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제네시스 EQ900을 출시하면서 고유의 첨단 주행지원 기술(ADAS) 브랜드인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를 선보였다. 이는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 ‘후측방 충돌 회피지원시스템’ 등 최첨단 주행 지원 기술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국내 자동차업체 최초로 미국 네바다 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했다. 현대·기아차가 면허를 발급 받은 자율주행 차량에는 독자개발에 성공한 구간 자율주행, 교통 혼잡 구간 자율주행, 비상 갇길 자율정차, 협로 주행지원 등의 지능형 고안된 자율주행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특히 혼잡구간주행지원시스템(TJA)과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HDA)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

서 정보를 융합하고 판단 및 제어 기술을 향상시켜 차선변경이 가능토록 설계했으며, 실제 도로에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정밀 위치인식 및 주행환경 인식기술, 경로생성 및 주행상황 판단기술, 차량 제어기술 등도 추가로 적용했다.

기아차는 이번엔 기술력을 인정받아 면허를 획득한 쏘울 자율주행 전기차를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 가전전시회(CES)에서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자율주행 기술은 현대차가 지난해 3월 서울모터쇼 프리뷰 행사에서 시연한 바 있는 혼잡구간주행지원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과 제네시스 EQ900에 탑재된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보다 한 단계 진보된 것이다. 또 기아차는 CES 개막

에 앞서 5일 자율주행 기반 신규 브랜드인 ‘DRIVE WISE(드라이브 와이즈)’를 최초 공개했다. DRIVE WISE는 기존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기능 간 결합은 물론 텔레매틱스, 내비게이션 및 IT와의 연동·융합을 통해 월등히 향상된 인식과 제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을,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카 분야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및 차량 IT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차량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혼다 CR-V, 차체 낮아지고 뒷좌석 공간 넓어졌다

여성 운전자도 쉽게 승차할 수 있게 탈바꿈
뒷좌석 접히는 원·모션 폴딩 리어 시트 적용

혼다코리아가 중형 SUV CR-V의 2016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CR-V는 1995년 출시돼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약 760만대 이상 판매된 월드 베스트셀링 SUV다.

2016년형 CR-V는 사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New CR-V의 차체 높이는 동급 최저 수준인 1685mm로, 여성 운전자도 쉽고 편안하게 승·하차 할 수 있다. 또 원·모션 폴딩 리어 시트를 적용해 누구나 손쉽게 뒷좌석을 접을 수 있고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했다. 멀티미디어시스템도 충실하다. 디스플레이오디오(DA)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오디오 및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 연비



혼다의 월드 베스트셀링 SUV인 CR-V의 2016년형 New 모델. 사진제공 | 혼다코리아

정보 등을 작동시킬 수 있다. 또 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며 DA와 연동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EX-L 트림에는 프리미엄급 사

양들을 대거 탑재해 고급화했고 한정판이었던 투어링 트림은 정구 트림으로 확정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붕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루프 레일과 도어 오픈 시 하단에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효과가 있는 일루미네이션 사이드 스텝 가니쉬(Illumination Side Step Garnish)는 두 트림 모두에 장착되었다. EX-L 트림은 2016년형부터 조수석 도어 미러 아래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주행 시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인 와치 시스템(Lane Watch System)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 기존과 달리 휠 디자인이 블랙과 화이트 두톤 컬러로 변경되어 스포티한 감각을 더했다.

파워트레인은 2.4L 직분사 엔진과 무단자동변속기 CVT를 채택했으며, 복합연비는 11.6km/L, 최고출력 188마력(6400rpm), 최대토크는 25.0kg·m(3900rpm)다. 2016년형 New CR-V의 가격은 E X-L 3890만원, 투어링 407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美 CES 간 황창규 KT회장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



KT는 황창규(사진) 회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에서 경기장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과 고객이다”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ES와 같이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T와 경기혁신센터는 ‘행사 적합도’와 ‘제품 상용화 수준’, ‘제품의 글로벌 지향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카비와 해보라, 247, 네오펙트 등 4개 기업을 선정해 미국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의 참가비용 지원과 잠재 고객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는 행사 기간 전 시를 참관하고,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